

이슈 브리핑

● 친환경차 / 탄소중립

- (탄소배출) 호주, 승용·경상용차 대상 신차 효율 표준 수립 추진
- (탄소배출) 노르웨이, 승용차 평균 탄소 배출량 사상 최저치 달성
- (탄소배출권) Tesla, '23년 탄소 배출권 판매로 2.39조원 매출 기록

● 자율주행 / SW / 미래모빌리티

- (AAM) Joby, '26년부터 6년간 두바이 에어택시 상업운영 독점 계약
- (ADAS) GM, '25년까지 북미 핸즈프리 기능 구간 1.9배 확장 예정
- (AI) Geotab, 차량관리 플랫폼에 생성형 AI 코파일럿 통합

● 글로벌 주요 부품사 동향

- (Forvia) 유럽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절감 프로젝트 개시
- (Qualcomm) 차량용 Wi-Fi 7 액세스 포인트 솔루션 발표
- (PowerCo-Koenig & Bauer) 건식 전극 개발을 위한 협력

친환경차 / 탄소중립

◆ (탄소배출) 호주, 승용·경상용차 대상 신차 효율 표준 수립 추진

- 호주는 차량 제조사에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차량 공급을 장려하기 위한 신차 효율 표준 (NVES)을 수립할 계획으로, '25년 승용차 141g/km, 경상용차 199g/km 기준이 유력
 - * 전체 차량의 평균 배출량에 관한 기준으로 기존 초과시 차량 제조사는 벌금 지불(그램당 \$100), 배출권 거래, 2년 이내 상쇄(예시: '25년도 배출량 초과시 '26년 감축분으로 배출권을 생산해 상쇄) 등으로 대응 가능
 - ** 상기 기준은 '29년 각각 58-81g/km으로 매년 12%가량 줄어들 예정
-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연간 약 \$1,000(약 87.6만원)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('28년 기준), '50년까지 총 3.69억 톤의 탄소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
 - * 호주는 러시아와 함께 주요국 중 유이하게 관련 표준이 없는 국가로, 승용차 신차의 연료 소비량이 미국과 EU 대비 각각 20%·40% 많음
 - ※ Australian Government('24.2.4.) <https://www.infrastructure.gov.au/infrastructure-transport-vehicles/vehicles/australian-government-introducing-new-vehicle-efficiency-standard-cleaner-and-cheaper-run-cars>

◆ (탄소배출) 노르웨이, 승용차 평균 탄소 배출량 사상 최저치 달성

- 노르웨이 도로교통협회(OFV)에 따르면 '24.1월 자국 내 승용차 신차의 평균 탄소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73.5% 감소한 9g/km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
 - * '22년 EU 평균 배출량 110g/km[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(ACEA) 기준]
- 무배출 차량의 판매 비중이 92.1%에 달한 점이 주 요인으로, 한편 휘발유와 디젤차*의 경우 같은 기간 탄소 배출량이 118g/km와 185g/km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·6g/km 증가
 - * 하이브리드 포함
 - ※ Ofv('24.2.1.) <https://ofv.no/CO2-utslippet/co2-utslippet>

◆ (탄소배출권) Tesla, '23년 탄소 배출권 판매로 2.39조원 매출 기록

- '23년 연간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Tesla는 당해 탄소 배출권 판매 사업에서 사상 최대인 \$17.9억(약 2.39조원)의 매출을 기록
- 배출권 판매를 제외한 당사 차량 사업의 마진이 '23년 4분기 '17.2%로 줄어든 가운데 ('22년 4분기 24.3%), 배출권 판매 및 에너지 생산·저장* 등 청정 에너지 부문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부각
 - * Tesla의 에너지 생산·저장 부문은 '23년 4분기 전년 대비 7.7% 증가한 \$140만(약 18.7억 원) 이상의 매출을 기록
 - ※ Carbon Credits('24.2.13.) <https://carboncredits.com/tesla-hits-record-high-sales-from-carbon-credits-at-1-79b/>

◆ (AAM) Joby, '26년부터 6년간 두바이 에어택시 상업운영 독점 계약

- eVTOL 제조 및 운영업체 Joby는 두바이 도로교통청(RTA)과 '26년부터 6년간 두바이 지역 에어택시 독점 운영 계약 체결 발표

* 영국 Skyports Infrastructure도 이번 계약에 참여하여 두바이 수직이착륙장(Vertiport) 건설 및 운영 독점 권한을 갖고, 두바이 내 수직 이착륙장 4개(두바이 국제공항, 팜 주메이라, 두바이 다운타운, 두바이 마리나) 설계 시작

** Joby의 4인승 에어택시는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팜 주메이라까지 10분 소요가 예상되는데, 이는 차량 대비 35분 줄어드는 것임

- 또 다른 eVTOL 제조사 Eve air mobility, Archer Aviation이 현지 항공운영사와 제휴하여 '26년부터 두바이를 비롯한 UAE 도시에서 에어택시 운영을 발표하였지만, 이번 독점 계약으로 일정기간 동안 두바이에서는 Joby만 운항 예정

※ Flying('24.2.14.) <https://www.flyingmag.com/joby-aviation-signs-exclusive-6-year-deal-for-electric-air-taxi-service-in-dubai/>
Skyports('24.2.11) <https://skyports.net/skyports-rt-a-and-joby-to-launch-air-taxi-service-in-dubai/>

◆ (ADAS) GM, '25년까지 북미 핸즈프리 기능 구간 1.9배 확장 예정

- GM은 '17년 사전에 주행지도가 작성된(Premapped) 고속도로에서 핸즈프리 기능을 제공하는 Lv.2* ADAS 'Super Cruise'를 출시했으며, '25년 3분기 서비스 구간을 121만km**까지 확장 계획

* 운전자는 도로를 주시하고 운전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므로, 운전자 모니터 카메라가 운전자의 머리와 시선 추적

** 최초로 북미 21만km 구간 지원, 이후 '22년 업데이트를 통해 현재 64만km 구간 핸즈프리 기능 제공

- 동사는 'Super Cruise'에 센서를 추가하고 322만km 핸즈프리 구간의 'Ultra Cruise'를 '24년 출시 예정이었으나, 취소 후 'Super Cruise'에 집중한다고 CNBC가 보도('24.1.15.)

※ Forbes('24.2.14.) <https://www.forbes.com/sites/samabuelsamid/2024/02/14/gms-hands-free-super-cruise-expands-to-750k-miles/?ss=transportation&sh=2ea09b63257f>

◆ (AI) Geotab, 차량관리 플랫폼에 생성형 AI 코파일럿 통합

- Geotab*은 기존 차량관리서비스 플랫폼 'MyGeotab'에 생성형 AI 코파일럿 'Ace'를 통합하여, 사용자가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통해 차량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함

* 400만 개 이상의 구독을 달성한 주요 텔레매틱스 기업으로,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차량 관리 지원

- 'Ace'는 차량 연료 효율성, 정비 문제 예측,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한 적합성 평가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을 빠르게 제공하며, 모든 차량 데이터는 Geotab 환경 내에서만 사용되고 외부로 공유되지 않음

* 다만, 사용자 질문은 Microsoft사의 Azure OpenAI로 전송됨

※ Geotab('24.2.16.) <https://www.geotab.com/uk/press-release/geotab-ace-news/>

◆ (Forvia) 유럽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절감 프로젝트 개시

- '22년 프랑스 부품기업 Faurecia가 독일 조명-전자 제조업체 Hella를 인수하며 설립한 Forvia는 유럽 내 경쟁력 강화 및 EV 전환에 따른 급변하는 환경 및 아시아 기업의 유럽 진출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, 5개년 비용절감 프로젝트 'EU-FORWARD' 개시

- 'EU-FORWARD' 프로젝트는 '24~'28년 유럽 인력 10,000명 감원 및 AI를 활용하여 연구-개발 지출 최적화를 통해 '28년 연간 5억 유로의 비용 절감 목표를 밝힘

* 동사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,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EMEA 지역 사업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'28년까지 EMEA 매출 40%, 영업이익의 35% 목표('23년 매출 46%, 영업이익의 22%)

※ Automotive Europe('24.2.19.) <https://europe.autonews.com/suppliers/forvia-cut-10000-jobs-europe-2028>
Forvia('24.2.19.) <https://investors.forvia.com/sites/investisseurs/files/documents/FORMA%20FY%202023%20RESULTS%20DEF%20FR.pdf>

◆ (Qualcomm) 차량용 Wi-Fi 7 액세스 포인트 솔루션 발표

- Qualcomm은 SDV 아키텍처 전환 시대에 커넥티비티 서비스가 필수요소로 대두됨에 따라, 차량 내 원활한 커넥티비티 경험 제공을 위해 '24.2.26~29 바르셀로나 MWC에서 차량용 Wi-Fi 7 액세스 포인트 솔루션*을 선보일 예정

* 동사의 스냅드래곤 오토 커넥티비티 플랫폼으로 셀룰러 5G/4G, Wi-Fi, 블루투스, C-V2X 및 정밀 위치 추적 기술 등을 포함하며, 더 큰 용량과 빠른 데이터 속도 및 강력한 무선 연결 제공

** Wi-Fi 7은 고대역 동시(HBS) 및 다중링크 다중무선(MLMR) 기술로 5Ghz-6Ghz 채널에서 동시 작동하여 차량 내 통신의 채널 최적화를 통해 끊임없는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, 최대 5.8Gbps 데이터 속도를 제공

※ Automotive World('24.2.20.) <https://www.automotiveworld.com/news-releases/qualcomm-sparks-the-next-phase-of-in-vehicle-experiences-with-the-worlds-first-wi-fi-7-for-automotive/>

◆ (PowerCo-Koenig & Bauer) 건식 전극 개발을 위한 협력

- Volkswagen 배터리 자회사 PowerCo와 독일 인쇄기 제조기업 Koenig & Bauer는 EV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새로운 제조기술인 건식 전극* 기술 개발 협력

* 건식 전극은 전기 제조 전체 프로세스에서 에너지 소비의 30%를 차지하는 대형 건조로 전극 건조 공정을 생략하므로, 제조원가 절감 및 공정 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가능

- 동사는 '24년 말 개발을 완료하여 '26~'27년 유럽 및 북미 배터리 공장에 도입할 계획

* 연간 수억 유로의 전기요금 절감을 예상하며, 에너지 소비량 30% 절감 및 공장 면적 15% 감소를 목표함

※ Nikkei Xtech('24.2.19.) <https://xtech.nikkei.com/atcl/nxt/column/18/02705/020100003/?P=2>